

충남 서산시

지속가능한 공유의 길을 열다

서산시는 활발한 시민참여 거점인 서산시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유인프라 활용 증진과 공유 테마를 확산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민센터 전경

서산시민센터로 놀러오세요!

서산시 변화1로에 위치한 ‘서산시민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실과 공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유누리 서비스 홈페이지 ‘인기자원’ 메뉴에 계속해서 올려져있다. 2020.5.15. 개관 이후 누적 이용인원 7,620명으로 월 평균 400여 명의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1층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활력공간 LAB>과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홀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배치했다. 동아리실과 회의실 공간도 넉넉하게 15명 내외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2층에는 시민들의 공익활동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층 공유북카페 이용모습



1층 커뮤니티홀

공공자원 공유의 잠재성을 일깨우다

서산시민센터는 공유북카페,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복합공유공간으로 조성됐다.

공유북카페는 ‘공유북카페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은 책이 1,500여 권에 달하며, 독서예능 프로그램 ‘북유럽 with 캐리어’를 통해 인기 장소로 발돋움하였다. 공유사무실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한 개인·단체에게 일정기간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서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주방공간도 조성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센터는 ‘자원봉사활동’, ‘환경생태운동’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공유회원이 서로의 분야를 소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원데이 클래스(1일 체험활동)’, ‘공유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공유누리에 등록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서산시 공유자원 지속가능한 공유의 길을 열다

서산시는 공유경제 확산 흐름 속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 시설들을 발굴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발굴 및 이용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지, 문화시설의 유휴공간, 무선 인터넷(WiFi) 서비스 등을 공유누리에 등록해, 시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활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시 관할 시설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공공자원 공유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층 공유공간